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전창현, 사무관 박완섭
(044-200-2346, 2348)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낙연 총리, 충북 청주 호우피해지역 방문, 호우 피해 및 수습 상황 점검 -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17일(월) 오후, 충북 청주시 호우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및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 참석 : 충북도지사(이시종), 청주시장(이승훈),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심덕섭), 안전처 차관(류희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김희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장(이경용), 충북소방본부장(김충식) 등

○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인명피해 : 사망 5명(청주 2, 괴산 2, 상주 1), 실종 1명(보은 1)

* 이재민 발생 : 일시 대피 후 미귀가자 248세대 517명

* 재산피해 : 주택파손 2동, 침수 686동, 공장·상가침수 16동, 차량침수 52대, 농경지침수 4,962 ha, 비닐하우스 침수 77동 등

□ 이 총리는 먼저, 침수로 가동이 중단된 청주 공공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인근 산업단지의 가동이 제한된 만큼 조속한 시설복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또한, 전례없는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게 명복을 빌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청주지역을 비롯하여 진천, 괴산, 증평 등의 피해현황을 조속히 파악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청주시 소재 석남천 월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청주교 사거리를 방문하여 청주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상황을 보고받고,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므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 이를 위해 안전처·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피해지역 지자체와 협조하여 복구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침수지역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 피해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재난복구 예산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